

국어 동의파생어 연구*

최형용**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는 동의 관계를 보이는 동의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를 의미론의 영역에서만 다루어 왔다. 그러나 동의어가 보이는 동의성이 형태론적 측면에서 새롭게 조명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즉 동의어들을 형태론적인 관점에서 재분류하면 특히 어기를 공유하면서 접사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동의파생어들이 높은 정도의 동의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동의파생어들은 그동안 형태론적 측면에서도 예외로 다루어져 온 경향이 있지만 그 규모와 양상을 살펴보면 결코 그럴 수 없다. 한편 동의파생어들은 대응하는 접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인 동의어와는 달리 고유어 접사끼리 혹은 한자어 접사끼리 대응하는 경우가 보다 일반적이라는 특성을 보여 준다. 동의파생어에 참여하는 접미사들은 의미론적으로는 [사람]을 지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또 접미사 대 동의파생어 유형의 비율도 가장 높은데 이는 [사람]을 나타내는 접미사들이 동의파생어 형성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핵심어 : 동의어, 동의 관계, 동의파생어, 고유어 접사, 한자어 접사

1. 머리말

이른바 동의어(synonym)는¹⁾ 동의 관계(synonymy)를 보이는 어휘의

* 이 연구는 2007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전공.

1) '동의어' 대신 '유의어'를 사용하기도 하나 최형용(2007나: 330)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동의어끼리 서로 충돌한다는 점이나 혹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본고의 '동의파생어'가 일반적인 동의어들보다 더 높은 동의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동의

쌍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때의 ‘동의 관계’는 ‘의미’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동의어도 자연히 의미론, 더 자세히는 어휘의미론의 영역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를 형태론적 관점에서 보면 동의어를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로 다시 분류할 수도 있다. 이는 동의어가 ‘의미’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단어 구성과 형성의 측면에서 형태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본고는 이러한 측면에서 동의어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를 목표로 삼는다. 따라서 이에는 동의어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가 조망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자 하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2. 동의어의 형태론적 분류와 동의파생어

그동안 동의어에 대해 이를 형태론적인 관점에서 조명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동의어에 대한 분류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가령 임지룡(1992: 137-141)에서는 Jackson(1988: 68-74)의 논의를 토대로 국어의 동의어를 방언, 문체, 전문성, 내포, 완곡어법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각각에 대한 예의 일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 가. 백부(伯父) : 큰아버지(대구·상주)/맏아버지(안동)
 백모(伯母) : 큰어머니(대구·상주)/맏어머니(안동)
- 나. 고유어-한자어 : 머리 - 두상(頭上), 이-치아(齒牙)
 고유어-서구어 : 불고기집 - 가든, 가게 - 슈퍼마켓, 동아리-씨클
 고유어-한자어-서구어 : 소젖 - 우유 - 밀크
- 다. 화학 : 염화나트륨 - 소금, 지방 - 기름
 승려 : 꼭차 - 술
- 라. 즐겁다 - 기쁘다, 불쌍하다 - 가엾다

간호부 - 간호사

마. 죽다 - 돌아가다, 천연두 - 마마

(1)에 제시된 동의어들은 단어를 형태론적으로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로 나눈다고 할 때는 다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2)가. 단일어 : 단일어

동아리-씨클

나. 단일어 : 파생어

불쌍하다 - 가엾다

다. 단일어 : 합성어

머리 - 두상(頭上), 이-치아(齒牙), 불고기집 - 가든, 가게 - 슈퍼마켓,
소젖 - 우유 - 밀크, 염화나트륨 - 소금, 지방 - 기름, 곡차 - 술,
죽다 - 돌아가다

라. 파생어 : 파생어

간호부 - 간호사, 즐겁다 - 기쁘다

마. 파생어 : 합성어

백부(伯父) : 맏아버지(안동)

백모(伯母) : 맏어머니(안동)

바. 합성어 : 합성어

천연두 - 마마

(2)에 대한 분류는 연구자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²⁾ 동의어의 형태론적 구조가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 모두에서 다양하게 발견된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듯하다. 이 가운데 (2다)의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되어 온 바와 같이 고유어와 한자어가

2) 가령 '즐겁다-기쁘다'에서 보이는 접미사 '-업-', '-브-'가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 생산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이를 '단일어 : 단일어'에 넣을 수도 있고 '백부-맏아버지'의 '맏-'을 접두사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를 '합성어 : 합성어'에 넣을 수도 있다. 한편 '큰아버지'의 '큰-'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접두사로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간호부-간호사'의 '-부'와 '-사'를 접미사로 간주하지 않고 '합성어 : 합성어'에 넣을 수도 있겠다.

동의어 쌍을 보이는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이에 속하기 때문이다.

남성우(1986: 9-11)에서는 동의어 경쟁(synonymic rivalry)의 측면에서 이를 형식적 관점과 내용적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다고 보고 형식적 관점을 다시 상이(相異)형과 상사(相似)형으로 나누었다. 이 가운데 상사형은 다시 음운론적 관점과 형태론적 관점으로 나누고 전자는 음운교체와 음운탈락, 후자는 파생과 합성으로 세부 사항을 분류하고 있다. 본고와 관련되는 부분은 형태론적 관점인데 이에 대해 남성우(1986)에서 제시된 것을 몇 가지 보이면 다음과 같다.³⁾

(3)가. 파생

글 : 글왈, 받다 : 바티다, 많이 : 해

나. 합성

엄(‘牙’) : 엄니

(3)의 예들을 (2)의 틀에 맞춘다면 ‘글 : 글왈’, ‘받다 : 바티다’는 (2나)에, ‘많이 : 해’는 (2라)에 해당하고 ‘엄 : 엄니’는 (2다)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이처럼 부분적이거나 동의어에 대한 형태론적 측면을 조명한 논의도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동의어에 대한 유형 분류가 주된 목적인 문금현(1989)에서 이러한 분류가 수용되지 않았던 사실에서 이를 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⁴⁾ 이는 남성우(1986)의 분류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동의어 경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남성우(1986)에서조차 적어도 형태론적 분류가 ‘동의어 경쟁’의

3) 남성우(2006)은, 남성우(1986)이 15세기 국어의 동의어에 대한 연구인 데 비해 16세기 국어의 동의어에 대한 연구이지만 그 틀은 남성우(1986)과 같다. 즉 남성우(2006)에서는 (3)의 예가 16세기의 것으로 교체되어 가령 파생은 ‘말 : 말슴’, 합성은 ‘오늘날 : 오늘’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4) 문금현(1989)에는 그동안 의미론의 업적들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동의어 분류 유형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식적 관점에서는 ‘고유어간 유의어’, ‘고유어와 한자어간 유의어’로 나누고 내용적 관점에서는 ‘의미 범위상’, ‘의미 내용상’, ‘내포의미의 차이’, ‘적용범위의 차이’, ‘지시범위의 차이’, ‘문체상의 차이’, ‘감정가치의 차이’를 기준으로 다시 열다섯 개의 유의어를 나누고 있다.

역동적인 측면보다는 동의성의 확인과 그에 따른 동의성의 정도 차이를 언급하는 데 초점이 놓여진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는 달리 말하자면 동의어의 형태론적 구조가 다른 분류와는 구별되는 동의어의 어떤 새로운 측면을 밝혀내는 데 기여했다고는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동의어의 형태론적 구조가 동의어에 대한 연구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2라) 가운데서도 ‘간호부’와 ‘간호사’와 같은 동의어 쌍이다. 이들은 어기인 ‘간호’를 공유하고 있지만 접미사가 차이가 나는 동의어이다. 이를 최형용(2006: 354)에서는 ‘동의파생어’라 한 바 있다. 동의파생어는 동의성을 보이는 단어들이 모두 파생어이면서 접사에만 차이를 보이는 것들을 일컫는다.⁵⁾ 따라서 이에 따르면 (2라)의 ‘즐겁다’와 ‘기쁘다’는 모두 접미사가 추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기가 다르다는 점에서 동의파생어의 테두리에 들어오지 못하며 (3가)의 ‘글 : 글썽’, ‘받다 : 바티다’는 단일이 對 파생어의 관계를 보인다는 점에서, ‘맑이 : 해’는 ‘즐겁다 : 기쁘다’와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동의파생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고에서 이처럼 동의파생어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크게 다음 두 가지 측면 때문이다.

첫째, 동의파생어는 매우 높은 정도의 동의성을 가지기 때문에 동의어에 대한 형태론적 접근이 동의어의 정도성 측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이광호(2002: 73)에서는 동의어가 공존하는 이유를 ‘①표현의미의 차이로 인해 공존하는 것’, ‘②통사적으로 변별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 ‘③중첩 의미 외에 가지는 다의적 용법으로 인한 것’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가운데 ①과 ②는 동의성이 강하지만 ③은 이들보다는 동의성의 정도가 약하다고 한 바 있다. 그런데 본고에서 살펴볼 동의파생어는 이들 세 가지 가운데 동의성의

5) 이광호(2007)에서는 이를 ‘동의적 파생어’라 부르고 있다.

정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①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동의성의 검증에서 흔히 사용되는 교체 가능성을 예로 들어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4)가. 통 {안/숙}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나. 나는 어제 오후 내내 걱정 (*안/숙)에서 동생을 기다렸다.

(5)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생벼락}이 친다.

나. 누가 이런 {날벼락/생벼락} 맞을 일을 했을까?

(4)의 ‘안’과 ‘숙’은 (4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의미에 서는 동의 관계를 보이지만 (4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추상적인 의미에서는 동의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앞서 제시된 기준에 의하면 ②와 ③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과 ‘숙’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동의성을 보이는 경우로 간주될 수 있다. 이에 비해 (5)의 동의파생어 ‘날벼락’과 ‘생벼락’은⁶⁾ 구체적인 맥락이든 추상적인 맥락이든 ①에 해당할 만하다는 점에서 높은 정도의 동의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동의파생어 전반에서 살펴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는 동의파생어가 우선 (2)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다른 경우들과는 달리 형식적인 측면에서 서로 흡사한 부분이 가장 많고 아울러 의미적인 측면에서 의미의 중심인 어기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예측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로부터 내릴 수 있는 가설 한 가지는 형태론적 구조가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동의성의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동의성의 정도를 언급할 때 동의어의 형태론적 구조에 착안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둘째, 동의파생어는 형태론의 논의, 더 자세히는 단어 형성의 측면에서 특히 저지현상(blocking)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암시해 준다. 사실 저지현상은 동의파생어가 높은 정도의 동의성을 가지고 있다

6) 전술한 ‘간호부’와 ‘간호사’를 동의접미파생어라고 한다면 ‘날벼락’과 ‘생벼락’은 동의접두파생어라 할 수 있다.

는 사실을 전제해야만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의 논의와도 연관된다. 저지현상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Aronoff(1976)에서 다음과 같은 빈칸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6) 가. curious	*	curiosity	curiousness
various	*	variety	variousness
specious	*	speciosity	speciousness
나. glorious	glory	*gloriosity	gloriousness
furios	fury	*furiosity	furiosness
gracious	grace	*graciosity	graciousness

즉 (6)의 ‘Xous’ 형용사들은 명사 형성을 위해 단 하나의 칸만 가지고 있는데 (6나)의 ‘glory’에서 보듯 이 칸이 이미 채워지면 다른 명사 형성(gloriosity)이 의미론적으로 저지된다는 것이다. 다만 ‘-ness’에 의해 형성되는 단어는 저지되지 않는데 이에 대해 Aronoff(1976)은 ‘-ness’의 생산성이 매우 높아 이에 의해 형성된 단어는 어휘부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자신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여기에도 ‘decency/decentness’, ‘aberrancy/aberrantness’, ‘profligacy/profligateness’와 같은 예외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6가)의 ‘curiosity/curiousness’와 같은 예들은 본고에서 설정한 동의파생어의 예가 되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예들이 저지현상의 예외의 자격을 지닌다는 정도에서만 언급되었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동의파생어의 존재는 예외로 언급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한편 동의파생어의 존재는 더 나아가 어휘부가 잉여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평가될 필요가 있다.⁷⁾

7) 여기서는 저지현상 그 자체보다는 동의파생어의 존재가 가지는 의의와 연관해서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였지만 저지현상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단순하지 않다. 또 그에 대한 평가도 가령 Kiparsky(1982)에서는 저지현상을 ‘동의어 회피 원칙(“Avoid Synonymy” principle)’으로 달리 명명하고 파생어뿐만이 아니라 굴절형에서도 men, feet가 *mens, *feets를 저지하는 것으로 보아 저지현상

이상과 같은 측면에서 본고는 동의파생어의 범위를 한정짓고 이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과정을 통해 그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3. 동의파생어의 범위

동의파생어의 범위를 한정짓기 위해 본고에서 참고한 일차적인 자료는 국립국어연구원(1999)의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이다. 《표준》에서는 유의어와 동의어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는데 국립국어연구원(2002가: 81)에 의하면 전체 표제항 509,076개 가운데 뜻풀이 뒤에 동의어를 제시한 표제어가 50,488개이고 뜻풀이를 하지 않고 기본 표제어의 동의어로 돌린 표제어가 70,340개이다. 유의어가 아니라 동의어라고 한 만큼 동의성의 정도가 높은 것만을 가려뽑았다는 것을 감안하고 이들 동의어 표제항에는 가령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동의파생어의 범위에 들어오는 ‘경사롭다/경사스럽다, 낭패롭다/낭패스럽다, 다사롭다/다사스럽다, 여유롭다/여유스럽다, 명예롭다/명예스럽다, 변화롭다/변화스럽다’와 같은 것들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한다면 국어에서 동의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 많은 숫자의 단어들에서 동의파생어의 범위를 한정짓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작업이 더 필요하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파생어에 필수적인 접사의 범위를 결정하는 일이다.

그동안 접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 왔으나 특히 본 연구

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Scalise(1984)에서처럼 저지현상을 하나의 경향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찾을 수 있다. 국내에서도 송철의(1992), 김창섭(1996)에서는 저지현상을 국어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지만 채현식(2000), 최형용(2004)에서처럼 어휘부의 잉여성과 관련하여 저지현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논의도 찾을 수 있다. 저지현상을 빈도와 관련하여 살펴보고 있는 경우는 Haspelmath(2002)에서 개관을 얻을 수 있고 빈도뿐만 아니라 생산성파도 저지현상이 관련되어 있다는 논의는 이광호(2007)을 참고할 수 있다.

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자어계 접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고유어계 접사는 그 위치가 한정되어 있어 접두사는 접두사로만, 접미사는 접미사로만 쓰이므로 별 문제가 없지만 한자어계 접사는 그 어원상 어근 혹은 단어의 자격도 가지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령 ‘인간(人間)’과 ‘외국인(外國人)’에서의 ‘인(人)-’은 ‘인간’에서는 접사로 간주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사실을 중시하여 김창섭(1999)에서는 고유어와 다수의 결합 예를 보이는 것만을 접미사 혹은 접두사로 간주하고 거의 한자어와만 결합하는 것은 접두어근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는 ‘외국인(外國人)’에서의 ‘-인(人)’이나 ‘비공식(非公式)’, ‘비무장(非武裝)’에서의 ‘비(非)-’는 접미냐 접두냐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접사가 아니라 모두 어근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에서의 ‘-인(人)’이나 ‘비(非)-’는 모두 접사로 간주하고자 한다. ‘어근’으로서는 ‘외국’, ‘무장’에 대해 자립성이나 의미 관계에 있어 종속적인 지위를 가지는 ‘-인’과 ‘비-’의 지위를 제대로 밝혀주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이다.⁸⁾ 또한 역사의 흐름을 따라 어근이나 명사 등이 접사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문법화(grammaticalization)의 입장에서라도 이러한 분석이 지지를 받는다고 판단된다.⁹⁾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의 접사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하고자 한다(최형용 2003: 24).

(7)가. 접사는 통사적 구성에 참여하는 일이 없다.

나. 접사는 항상 외현적(overt)이고 부가적(additional)이다.

(7가)는 본 연구가 이른바 통사적 파생의 접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8) 즉 ‘외국인’과 ‘비무장’은 국어의 단어 체계에 있어서도 파생어로 간주하고 합성어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9)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날고기’의 ‘날’이 이러한 문법화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날로’의 ‘날’은 명사이지만 이미 자립성을 잃고 ‘날고기’와 같은 구성에서 ‘날’은 접두사의 자격만을 가질 뿐이다.

것을 의미하고 (7나)는 이른바 영접미사(zero suffix)와 같은 것들은 동의파생어를 논함에 있어 참고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즉 명사로서의 ‘오늘’과 부사로서의 ‘오늘’은 동의파생어의 테두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선 다음의 몇 개 단어를 대상으로 동의파생어의 범위를 한정하는 방법의 일단을 보이기로 한다.

- (8) 가경일/가경절
 가농작/내농작
 가닐대다/가닐거리다
 가도관/헛물관
 가동대다/가동거리다
 가동대다/가동거리다
 가드락대다/가드락거리다
 가득가득히/가득가득
 가든가든히/가든가든
 가들대다/가들거리다
 가들랑대다/가들랑거리다
 가들막대다/가들막거리다
 가뜩가뜩이/가뜩가뜩
 가뜩이/가뜩
 가뜩가뜩히/가뜩가뜩
 가락가락이/가락가락
 가랑대다1/가랑거리다1
 가랑대다2/가랑거리다2
 가르랑대다/가르랑거리다
 가만가만히/가만가만
 가만히/가만
 ∴

(8)은 전술한 《표준》을 대상으로 동의어로 처리된 표제항 가운데 극히 일부를 보인 것이다. 이들 가운데 ‘-대다’, ‘-거리다’ 파생어는 국어에 존재하는 가장 전형적인 동의파생어라 할 수 있다.¹⁰⁾ 그러나 ‘가

경일(嘉慶日), ‘가경절(嘉慶節)’과 ‘가농작(假農作)’, ‘내농작(內農作)’은 사정이 간단하지 않다. 우선 ‘-일(日)’과 ‘-절(節)’은 생산성의 차이는 있지만 (7)의 조건에 비추어 보면 둘 다 접미사로 보아 무방하다.¹¹⁾ ‘가농작’의 ‘가(假)-’도 마찬가지로 접두사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내농작’의 ‘내(內)’는 자립적으로 쓰이는 ‘내’(건물 내)와의 연관성을 고려한다면 접두사로 간주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경일’과 ‘가경절’은 동의파생어 관계를 보이지만 ‘가농작’과 ‘내농작’은 동의파생어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가도관(假導管)’과 ‘헛물관’도 흥미로운 예이다. ‘가(假)-’와 ‘헛-’은 모두 접두사이지만 ‘도관’과 ‘물관’이 서로 변동을 보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동의파생어로 볼 수 없다. ‘가득가득히’와 ‘가득가득’류는 부사파생접미사가 결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서로 동의어를 이루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것도 ‘가득가득’이 파생어가 아니므로 동의파생어의 테두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면 (8) 가운데 동의파생어는 다음과 같다.

(9) 가경일/가경절

가닐대다/가닐거리다
가동대다/가동거리다
가등대다/가등거리다
가드락대다/가드락거리다
가들대다/가들거리다
가들랑대다/가들랑거리다
가들막대다/가들막거리다

10) 최형용(2004)에서는 국어의 ‘-대다’, ‘-거리다’ 동의파생어가 Aronoff(1976)의 저지현상에 대한 반례로 가장 적절한 것임을 주장한 바 있다.

11) 그러나 《표준》에서는 ‘일(日)’은 접미사로 간주하고 있지만 ‘절(節)’은 접미사로 간주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명사 ‘절(節)’에 ‘일(日)’에 대당하는 의미를 싣고 있지도 않다. 본고에서는 ‘가경절(嘉慶節)’, ‘광복절(光復節)’, ‘제헌절(制憲節)’ 등의 ‘절(節)’을 접미사로 간주하고자 한다. 박형익(2004: 458)에 의하면 참고한 7개 사전 가운데 《표준》과 이기문 감수 《동아 새국어사전》에서만 ‘절(節)’을 접미사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

가랑대다1/가랑거리다1
가랑대다2/가랑거리다2
가르랑대다/가르랑거리다
⋮

이러한 동의파생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도 제외된다.

- (10) 가. 망신감/망신거리, 바느질감/바느질거리, 반찬감/반찬거리, 일감/일거리, 자랑감/자랑거리
나. 방전광/방전빛, 방패무/방패춤, 변광벌/변광성, 봉급일/봉급날, 빈치사/공치사, 삼림띠/삼림대, 충격력/충격힘, 하숙옥/하숙집, 흰운모/백운모
나. 큰동맥/대동맥, 큰정맥/대정맥, 큰취타/대취타, 큰판/대판
나. 큰누이/만누이, 큰동서/만동서, 큰딸/만딸, 큰매부/만매부, 큰며느리/만며느리, 큰사위/만사위, 큰손녀/만손녀, 큰손자/만손자, 큰시누/만시누, 큰아들/만아들, 큰언니/만언니, 큰오빠/만오빠, 큰조카/만조카, 큰형/만형, 큰형수/만형수
다. 비극성용매/불극성용매, 비합리적/불합리적
라. 구렁텅/구렁텅이, 망석증/망석증이

(10가)는 ‘감’과 ‘거리’의 명사성에 따라 제외된 예들을 보인 것이다. ‘델감’, ‘안줏감’이나 ‘먹을거리, 볼거리’, ‘이야깃거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감’이나 ‘거리’는 파생접미사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¹²⁾ (10나)는 공통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 가운데 어느

12) 그러나 ‘감’이나 ‘거리’가 앞으로 접미사화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먼저 ‘감’은 원래 ‘이 옷은 감이 부드럽다’에서 온 것이지만 ‘신랑감, 장군감’에서는 ‘사람’을 나타내고 ‘반찬감, 일감’에서는 ‘재료, 도구’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확대되어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문법화의 전형적인 경로를 밟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거리’는 이만큼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지시대상에서 추상적인 지시대상으로 그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예측을 할 수 있다. 후술하는 ‘방청객’의 ‘-객(客)’도 이러한 과정에 놓인 것으로 보이나 이 ‘-객(客)’은 《표준》의 처리를 따라 접미사로 다루기로 한다.

하나가 파생접미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10가)와 구별될 뿐만 아니라 ‘ㅌ’을 ‘하늘 천’으로 부르는 것과 같이 공통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가 하나는 고유어 훈으로 다른 하나는 한자어 음으로 읽히는 관계를 보이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고유어 부분이 자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의파생어에서 제외된다. (10나')의 ‘큰’과 ‘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10나")의 ‘친족 관계’에서의 ‘큰’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사전에서는 이 ‘큰’을 접두사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김민수 외(1991)과 《표준》에서는 이를 접두사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 때의 ‘큰’이 그 의미상 특수화한 것이기는 하지만 자립성을 잃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접두사로 간주하지 않기로 한다. (10다)의 ‘비극성용매/불극성용매’는 직접성분분석을 통해 파생어가 아니라 합성어로 판명되기 때문에 제외되는 예이다. 즉 ‘비극성용매’는 ‘불극성용매’와 마찬가지로 내부 구조가 [비[극성용매]]가 아니라 [비극성[용매]]이다. ‘비합리적/불합리적’은 합성어는 아니지만 역시 직접성분분석에서 ‘[[비합리]적]’, ‘[[불합리]적]’으로 분석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비합리’와 ‘불합리’는 동의파생어 쌍이 될 수 있지만 ‘비합리적’과 ‘불합리적’은 동의파생어가 될 수 없다. (10라)는 (8)의 ‘가뜩’과 ‘가뜩이’가 제외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제외된 것이다. 물론 이들에서의 ‘-이’는 그 지위가 서로 같지 않다.

이상과 같은 작업을 거쳐 얻은 동의파생어의 쌍은 표제어를 기준으로 하여 모두 4,041개에 이른다. 물론 연구자나 연구 대상에 따라 다른 수치가 얻어질 수도 있고 《표준》 자체가 가지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롭-’ 파생어와 ‘-스럽-’ 파생어에 대한 처리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 (11) 가. 상스럽다/상서스럽다, 호스럽다/호사스럽다, 인자롭다/인자스럽다,
평화롭다/평화스럽다
나. 경스럽다/경사스럽다, 다스럽다/다사스럽다, 영예롭다/영예스럽다,
폐롭다/폐스럽다

- 다. 낭패롭다/낭패스럽다, 명예롭다/명예스럽다, 변화롭다/변화스럽다,
보배롭다/보배스럽다, 수고롭다/수고스럽다, 신비롭다/신비스럽다,
영화롭다/영화스럽다, 예사롭다/예사스럽다, 요괴롭다/요괴스럽다,
자비롭다/자비스럽다, 자유롭다/자유스럽다, 재미롭다/재미스럽다,
저주롭다/저주스럽다, 초조롭다/초조스럽다, 풍아롭다/풍아스럽다,
한가롭다/한가스럽다, 혐의롭다/혐의스럽다, 호기롭다/호기스럽다,
호화롭다/호화스럽다
라. 여유롭다/여유스럽다
마. 신기롭다/신기스럽다

(11가)는 《표준》에서 동의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 (11나)는 비슷한 말로 표시되어 있다. 한편 (11다)는 서로의 연관성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11라)는 ‘여유스럽다’가 아예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11마)는 “‘신기스럽다’는 ‘신기롭다’의 잘못”으로 풀이되어 있다. 그러나 ‘-롭-’과 ‘-스럽-’은 빈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기능과 의미 사이에서의 차이는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롭-’ 파생어와 ‘-스럽-’ 파생어가 동의어로서 공존하는 것은 ‘-롭-’의 생산성과 ‘-스럽-’의 생산성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원래 ‘-롭-’만이 가능했던 영역을 ‘-스럽-’이 자신의 생산성을 늘려 가는 과정에서 침범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송철의 1992: 209).

위에서 언급한 4,041개 동의파생어에는 (11가)의 경우만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국립국어연구원(2002가: 21)에 제시된 품사별 표제어 분류에서 대명사, 수사, 관형사, 조사, 감탄사, 보조 동사, 보조 형용사의 수를 모두 더한 것(3,671개)보다도 많은 수치이다. 이는 가령 저지현상과 같은 어떤 단일 현상에 대한 ‘예외’라고는 도저히 부를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이들을 유형 분류하고 그 특성에 대해 언급해 보기로 한다.

4. 동의파생어의 유형

4.1. 빈도 및 품사

우선 동의파생어의 전체적인 모습을 살피기 위해 항목 빈도와 품사에 따라 분류해 보기로 한다. 4,041개 동의파생어 쌍은 접미사가 대응소인 경우가 4,003개(99.1%)이고 나머지 38개(0.9%)는 접두사가 대응소인 경우이다. 그리고 동의파생어 쌍 전체는 모두 151개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가운데 136개 유형이 접미사가 대응소인 것이고 나머지 15개 유형은 접두사가 대응소인 것이다. 먼저 접미사가 대응소인 것을 빈도 순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의 숫자가 빈도이며 같은 유형의 동의파생어가 한 번뿐인 것은 별다른 표시를 하지 않았다. 접두사가 대응소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가닐대다/가닐거리다(3,624)	별목부/별목꾼(2)	사기사/사기꾼	채약사/채약인
경락자/경락인(78)	성탄제/성탄절(2)	사기한/사기꾼	철물상/철물점
가무스래하다/가무스름하다(21)	수단가/수단꾼(2)	사임장/사임원	철물전/철물점
고실자/고실가(18)	수축료/수축금(2)	생산고/생산액	출납장/출납부
공작품/공작물(15)	욕심보/욕심꾸러기(2)	생판쟁이/생판내기	칠성당/칠성각
독단설/독단론(12)	거주소/거주지	서양류/서양풍	칠성전/칠성각
난봉쟁이/난봉꾼(9)	검장/검공	수직간/수직실	토포관/토포사
구금소/구금장(8)	검양사/검양어	수축소/수축공	통행증/통행권
늦잠쟁이/늦잠꾸러기(6)	고문장/고문실	숙설소/숙설청	풍요하다/풍요롭다
도덕인/도덕가(6)	공무부/공무국	시계장이/시계사	필경증/필경생
밀회처/밀회소(6)	광고장/광고지	시장증/시장기	필경사/필경생
불평객/불평가(6)	교차가/교차율	시장배/시장아치	혼혈인/혼혈아
경호인/경호원(5)	구류장/구류간	신뢰심/신뢰감	화류장/화류계
대장공/대장장이(5)	구실바치/구실아치	실제파/실제가	
소유주/소유자(5)	기어이/기어코	심사율/심사령	
선전자/선전원(5)	폐편/폐보	안경잡이/안경쟁이	
가경일/가경절(4)	폐쟁이/폐보	안달이/안달뱅이	

기관수/기관사(4)	내향성/내향형	야경원/야경꾼	
도리깨꾼/도리깨잡이(4)	노동가/노동요	야살이/야살쟁이	
도회처/도회지(4)	노릇꾼/노릇바치	양심수/양심범	
방청인/방청객(4)	느림뱅이/느림보	어학도/어학생	
상서롭다/상서스럽다(4)	덜렁꾼/덜렁쇠	옥인/옥장이	
밀도기/밀도계(3)	덜렁이/덜렁쇠	요양소/요양원	
기공도/기공울(3)	덤벙꾼/덤벙이	운반자/운반체	
날파람쟁이/날파람둥이(3)	돌짜리/돌쟁이	유치수/유치인	
방독복/방독의(3)	동일화/동일시	이발관/이발소	
방랑객/방랑자(3)	등대수/등대지기	입찰액/입찰가	
부양비/부양료(3)	무지자/무지한	자유인/자유민	
사령서/사령장(3)	바람직스럽다/바람직하다	잠수공/잠수부	
수단꾼/수단객(3)	발목쟁이/발모가지	잠수구/잠수기	
신호수/신호원(3)	발아세/발아력	장사꾼/장사치	
염색사/염색가(3)	방수액/방수제	장악서/장악원	
의심쩍다/의심스럽다(3)	배수구/배수로	전환기/전환자	
투시화/투시도(3)	배심관/배심원	점자/점쟁이	
다혈성/다혈질(2)	배중론/배중률	정비원/정비공	
도매소/도매점(2)	배차계/배차원	조각장이/조각가	
땅딸이/땅딸보(2)	벌목공/벌목꾼	조울공/조울사	
매장인/매장꾼(2)	변덕맞다/변덕스럽다	졸업자/졸업생	
미괄형/미괄식(2)	보험액/보험금	졸업증/졸업장	
밀렵자/밀렵꾼(2)	북극양/북극해	주정배기/주정뱅이	
배달부/배달원(2)	불교도/불교가	정역꾼/정역수	

<표 1> 접미사가 대응소인 동의파생어 유형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 조사된 동의파생어 가운데 가장 높은 항목 빈도를 보이는 것은 ‘가닐대다/가닐거리다’ 유형이다. 전체 4,041개 가운데 3,624개가 이 유형에 속하는데 비율로 따지면 89.7%에 이른다. 조남호(1988: 68)에서는 ‘-대-’ 파생어가 ‘-거리-’ 파생어보다 ‘적극적인 동작’을 의미한다고 보아 두 접미사의 의미 차이를 언급한 바 있고 ‘흔들거리다/*흔들대다’, ‘*으스거리다/으스대다’, ‘*어거거

리다/어기대다'와 같이 어느 한 쪽만 가능한 경우도 보고된 바 있지만 《표준》에서는 이 가운데 '흔들대다'는 '흔들거리다'와 동의어로 제시되어 있다. 품사별로는 '가닐대다/가닐거리다'류만 동사이고, '가무스레하다/가무스레하다', '상서롭다/상서스럽다', '의심쩍다/의심스럽다', '바람직스럽다/바람직하다'류와 '변덕맞다/변덕스럽다', '풍요하다/풍요롭다'는 형용사이다. '기어이/기어코'는 부사의 예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명사이다. 즉 항목 빈도는 '가닐대다/가닐거리다' 때문에 동사의 경우가 가장 높지만 유형 빈도는 명사가 전체 유형 136개 가운데 128개로 압도적으로 높다.

이번에는 접두사가 대응소인 동의파생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날고치/생고치(16)	건주낙/민주낙	대사리/한사리
불가역/비가역(6)	공걸음/헛걸음	불강도/날강도
건구역/헛구역(2)	군기침/헛기침	생술/뜻술
몰비판/무비판(2)	날바닥/맨바닥	연수필/경수필
생아버지/친아버지(2)	다소득/고소득	잡식구/군식구

<표 2> 접두사가 대응소인 동의파생어 유형

접미파생어가 접두파생어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처럼 동의파생어에도 접두사가 대응소인 동의파생어 유형은 접미사가 대응소인 경우에 비하면 그 수가 많지 않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 동의파생어 쌍은 38개이지만 유형으로는 15개이고 이 가운데 '날고치/생고치' 유형이 16개로 42.1%를 차지한다. 대응소가 접두사인 경우에는 품사가 모두 명사뿐이라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4.2. 고유어 접사 對 한자어 접사

이번에는 <표 1>과 <표 2>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접사의 갈래에 따라 동의파생어를 분류해 보기로 한다. 대응하는 접사는 크게 고유어 접

사 對 고유어 접사, 고유어 접사 對 한자어 접사, 한자어 접사 對 한자어 접사의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이를 차례대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접미사			접두사
가 닐 대 다/가 닐 거 리 다 (3,624)	욕심보/욕심꾸러기(2)	바람직스럽다/바람직하다	군기침/헛기침
가무스레하다/가무스름하 다(21)	구실바치/구실아치	발목쟁이/발모가지	날바닥/맨바닥
난봉쟁이/난봉꾼(9)	기어이/기어코	변덕맞다/변덕스럽다	불강도/날강도
늦잠쟁이/늦잠꾸러기(6)	피곤/피로	생판쟁이/생판내기	
도리깨꾼/도리깨잡이(4)	피쟁이/피로	안경잡이/안경쟁이	
상서롭다/상서스럽다(4)	노릇꾼/노릇바치	안달이/안달뱅이	
날파람쟁이/날파람둥이(3)	느림뱅이/느림보	야살이/야살쟁이	
의심쩍다/의심스럽다(3)	덜렁꾼/덜렁쇠	장사꾼/장사치	
땅딸이/땅딸보(2)	덜렁이/덜렁쇠	주정배기/주정뱅이	
	덤벙꾼/덤벙이	풍요하다/풍요롭다	
	둘째리/둘쟁이		

<표 3> 고유어 접사 對 고유어 접사

접미사			접두사
대장공/대장장이(5)	별목공/별목꾼	점자/점쟁이	날고치/생고치(16)
수단꾼/수단객(3)	사기사/사기꾼	조각장이/조각가	건구역/헛구역(2)
매장인/매장꾼(2)	사기한/사기꾼	징역꾼/징역수	건주낙/민주낙
밀렵자/밀렵꾼(2)	시계장이/시계사		공질음/헛질음
별목부/별목꾼(2)	시장배/시장아치		대사리/한사리
수단가/수단꾼(2)	야경원/야경꾼		생술/뜻술
등대수/등대지기	옥인/옥장이		잡식구/군식구

<표 4> 고유어 접사 對 한자어 접사

접미사			접두사
경락자/경락인(78)	거주소/거주지	심사율/심사령	불가역/비가역(6)
고실자/고실가(18)	검장/검공	양심수/양심원	몰비판/무비판(2)
공작품/공작물(15)	겸양사/겸양어	어학도/어학생	생아버지/천아버 지(2)
독단설/독단론(12)	고문장/고문실	요양소/요양원	다소득/고소득
구급소/구급장(8)	공무부/공부국	운반자/운반체	연수필/경수필
도덕인/도덕가(6)	광고장/광고지	유치수/유치인	
밀회처/밀회소(6)	교차가/교차율	이발관/이발소	

불평객/불평가(6)	구류장/구류간	입찰객/입찰가	
경호인/경호원(5)	내향성/내향형	자유인/자유민	
소유주/소유자(5)	노동가/노동요	잠수공/잠수부	
선전자/선전원(5)	동일화/동일시	잠수구/잠수기	
가경일/가경절(4)	무지자/무지한	장악서/장악원	
기관수/기관사(4)	발아세/발아력	전환기/전환자	
도회처/도회지(4)	방수액/방수제	정비원/정비공	
방청인/방청객(4)	배수구/배수로	조율공/조율사	
밀도기/밀도계(3)	배심관/배심원	졸업자/졸업생	
기공도/기공율(3)	배중론/배중물	졸업증/졸업장	
방독복/방독의(3)	배차계/배차원	채약사/채약인	
방랑객/방랑자(3)	보험액/보험금	철물상/철물점	
부양비/부양료(3)	북극양/북극해	철물진/철물점	
사령서/사령장(3)	불교도/불교가	출납장/출납부	
신호수/신호원(3)	사임장/사임원	철성당/철성각	
염색사/염색가(3)	생산고/생산액	철성전/철성각	
투시화/투시도(3)	서양류/서양풍	토포관/토포사	
다혈성/다혈질(2)	수직간/수직실	통행증/통행권	
도매소/도매점(2)	수축소/수축공	필경공/필경생	
미관형/미관식(2)	숙철소/숙철청	필경사/필경생	
배달부/배달원(2)	시장증/시장기	혼혈인/혼혈아	
성탄제/성탄절(2)	신뢰심/신뢰감	화류장/화류계	
수속료/수속금(2)	실제파/실제가		

<표 5> 한자어 접사 對 한자어 접사

우선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유어 접사와 고유어 접사가 대응할 때 대응소가 접미사인 경우는 30개 유형, 3,698개 항목이고 대응소가 접두사인 경우는 3개 유형, 3개 항목이다. 다음으로 <표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유어 접사와 한자어 접사가 대응할 때 대응소가 접미사인 경우는 17개 유형, 27개 항목이고 대응소가 접두사인 경우는 7개 유형, 23개 항목이다. 마지막으로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자어 접사와 한자어 접사가 대응할 때 대응소가 접미사인 경우는 89개 유형, 278개 항목이고 접두사인 경우는 5개 유형, 12개 항목이다.

접사의 대응 양상과 관련하여 동의파생어가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 고유어 접사 對 고유어 접사, 한자어 접사 對 한자어 접사의 대응 유형이 고유어 접사 對 한자어 접사의 경우보다 유형이나 항목 빈도에서 대

체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그동안 동의어가 존재하는 가장 원천적인 이유가 한 언어에 계열을 달리하는 어휘군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본 것(심재기 2000: 37)과는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다. 만약 이러한 견해를 참고한다면 고유어 對 한자어 접사의 대응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하기 때문이다.¹³⁾ 따라서 동의어가 충돌하는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한 부분도 역시 동의파생어에서는 다른 양상을 가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즉 심재기(2000: 38)에서는 동의어의 충돌에서 살아남는 쪽에 ‘음절이 짧은 쪽이 살아 남는다, 일반적인 용어가 살아 남는다, 문화적으로 우위에 있는 말이 살아 남는다’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였지만 동의파생어에는 이 세 가지가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다. 동의 충돌의 결과에 대해서도 동의파생어는 다른 측면에서의 해석을 적용 받는다. 즉 심재기(2000: 39)에서는 동의어가 충돌할 때 그 결과는 ‘둘 다 공존하는 경우, 어느 한 쪽만 남는 경우, 동의 중복이 되는 경우, 의미 영역이 바뀌는 경우, 의미 가치가 바뀌는 경우’의 다섯인데 이들 가운데 기본적으로 동의파생어는 ‘둘 다 공존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어느 한 쪽만 남는 경우’는 부분적으로만 적용되며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부분적으로만 적용된다’고 한 것은 의미에서는 동의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동의어 쌍 가운데 어느 하나가 더 높은 빈도를 가지기 때문에 결국 낮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은 국립국어연구원(2002나)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즉 한자어 접미사 對 한자어 접미사의 대응 양상을 보여 주는 예 가운데 ‘동호인/동호자’ 쌍은 국립국어연구원(2002나)에 따르면 ‘동호인’만 4회로 23,04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동호자’는 단 한 차례도 보고 되어 있지 않다. 고유어 접미사 對 고유어 접미사의 대응 양상을 보여 주는 ‘바람둥이/바람쟁이’의 경우도 ‘바람둥이’는 6회로 18,540위이지만 ‘바람쟁

13) 한자어 접사와 고유어 접사 대응의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서는 최형용(2006)을 참고할 것.

이'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접미사의 생산성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가령 '동호인/동호자'와 같은 부류인 '보행인/보행자' 쌍은, 이번에는 '보행자'만 7회로 16,941위를 차지하고 '보행인'은 보이지 않는데 이것을 보면 접미사의 생산성만으로는 이 현상이 설명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3. 대응소의 의미

동의파생어는 대응소가 지시하는 의미에 따라 다시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대응소가 접두사인 것은 '불가역/비가역(6)', '몰비판/무비판(2)' 정도에서 [부정]의 의미 정도가 눈에 띄일 뿐 별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해 대응소가 접미사인 경우는 몇 가지 뚜렷한 양상을 보인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접미사 대응소가 [사람]을 지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점이다.

예	접미사의 종류
경락자/경락인(78), 고실자/고실가(18), 난봉쟁이/난봉꾼(9), 늦잠쟁이/늦잠꾸러기(6), 도덕인/도덕가(6), 불평객/불평가(6), 경호인/경호원(5), 대장공/대장장이(5), 소유주/소유자(5), 선전자/선전원(5), 기관수/기관사(4), 도리깨꾼/도리깨잡이(4), 방청인/방청객(4), 날파람쟁이/날파람둥이(3), 방랑객/방랑자(3), 수단꾼/수단객(3), 신호수/신호원(3), 염색사/염색가(3), 땅딸이/땅딸보(2), 매장인/매장꾼(2), 밀렵자/밀렵꾼(2), 배달부/배달원(2), 벌목부/벌목꾼(2), 순단가/수단꾼(2), 육심보/육심꾸러기(2), 검장/검공, 구실바치/구실아치, 꾀꾼/꾀보, 꾀쟁이/꾀보, 노릇꾼/노릇바치, 느림뱅이/느림보, 덜렁꾼/덜렁쇠, 덜렁이/덜렁쇠, 덤병꾼/덤병이, 돌짜리/돌쟁이, 등대수/등대지기, 무지자/무지한, 배심관/배심원, 별목공/별목꾼, 불교도/불교가, 사기사/사기꾼, 사기현/사기꾼, 생판쟁이/생판내기, 시계장이/시계사, 실체파/실체가, 안경잡이/안경쟁이, 안달이/안달뱅이, 야경원/야경꾼, 야살이/야살쟁이, 양심수/양심범, 어학도/어학생, 육인/육장이, 유치수/유치인, 자유인/자유민, 장수공/잠수부, 장사꾼/장사치, 점자/점쟁이, 정비원/정비공, 조각장이/조각가, 조율공/조율사, 졸업자/졸업생, 주정배기/주정뱅이, 정역꾼/정역수, 채약사/채약인, 토포관/토포사, 필경공/필경생, 필경사/필경생, 혼혈인/혼혈아	-자, -인, -가, -쟁이, -꾼, -꾸러기, -객, -원, -공, -장이, -주, -수, -사, -잡이, -둥이, -이, -보, -부, -장, -바치, -아치, -뱅이, -쇠, -짜리, -지기, -한, -관, -도, -내기, -파, -범, -생, -민, -치, -배기, -아

<표 6> 접미사 대응소의 의미가 [사람]인 경우

<표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응소가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는 68개 유형, 227개 항목에 달하며 접미사의 종류도 36개에 이른다. 전체 유형이 136개이므로 50%가 [사람]을 지시한다. 이러한 높은 비율은 다른 의미를 지시하는 경우와는 달리 특히 [사람]의 의미를 가지는 동의파생어가 3항으로 나타나는 양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¹⁴⁾

- (12) 가. 꺾꾼/꺾보/꺾쟁이, 덜렁이/덜렁꾼/덜렁쇠, 욕심꾸러기/욕심쟁이/욕심보나. 문학인/문학가/문학자, 방청인/방청자/방청객, 소유인/소유주/소유자, 호사자/호사객/호사가, 출납인/출납자/출납원, 필경공/필경생/필경사
 다. 별목공/별목꾼/별목부, 사기사/사기꾼/사기환, 수단가/수단객/수단꾼, 조각사/조각장이/조각가

(12가)는 고유어 접미사가 대응소인 동의파생어가 [사람]의 의미를 가지며 3항 관계를 보이는 경우이고 (12나)는 한자어 접미사가 대응소인 동의파생어가 [사람]의 의미를 가지며 3항 관계를 보이는 경우이다. (12다)는 고유어 접미사와 한자어 접미사가 섞여 있는 경우이다.¹⁵⁾

한편 접미사 대응소가 구체적인 [장소]나 [사물]을 지시하는 경우도 적잖이 발견된다.

14) 물론 [사람]의 경우에만 3항 쌍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극히 드물지만 ‘성탄 일/성탄절/성탄제’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장소]를 나타내는 ‘철성당/철성각/철성전’, [사물]을 나타내는 ‘철물전/철물상/철물점’과 같은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15) 주지하는 바와 같이 ‘-꾼’과 ‘-장이’, ‘-쟁이’는 한자 ‘軍’, ‘匠’이 그 기원이다. 그러나 이들에서 발전한 ‘-꾼’과 ‘-장이’는 원래 한자가 가지는 어휘보다 더 확대된 의미로 쓰이고 적어도 표기상 음운의 변화가 아울러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고유어 접미사로 보아 무방하다. 이러한 것에 ‘직(直)’에 ‘이’가 결합한 ‘-지기’, ‘동(童)’에 ‘이’가 결합한 ‘-동이’가 더 있다. 이들은 초기에는 ‘장정군/장정꾼, 각직/각지기, 근원동/근원동이, 모의장/모의장이’처럼 동의어 쌍을 갖는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최형용(2006: 356-358)을 참고할 것.

예	접미사의 종류
구급소/구급장(8), 밀회처/밀회소(6), 도회처/도회지(4), 도매소/도매점(2), 거주소/거주지, 고문장/고문실, 구류장/구류간, 수직간/수직실, 숙설소/숙설청, 요양소/요양원, 이발관/이발소, 장악서/장악원, 철물상/철물점, 철물전/철문점, 칠성당/칠성각, 칠성전/칠성각, 화류장/화류계	-소, -장, -처, -지, -점, -실, -간, -청, -원, -관, -서, -상, -전, -각, -계

<표 7> 접미사 대응소의 의미가 [장소]인 경우

예	접미사의 종류
밀도기/밀도계(3), 방독복/방독의(3), 사령서/사령장(3), 투시화/투시도(3), 광고장/광고지, 방수액/방수제, 사임장/사임원, 잠수구/잠수기, 졸업증/졸업장, 출납장/출납부, 통행증/통행권	-기, -계, -복, -의, -서, -장, -화, -도, -지, -액, -제, -원, -구, -증, -부, -권

<표 8> 접미사 대응소의 의미가 [사물]인 경우

<표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응소가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는 17개 유형, 33개 항목으로 전체 유형 가운데 12.5%를 차지한다. 또한 <표 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대응소가 구체적인 [사물]을 지시하는 경우는 11개 유형, 19개 항목으로 전체 유형 가운데 8.1%를 차지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하여야 할 것은 각 의미 유형 대 접미사의 비율이다. 즉 [사람]은 68개 유형을 36개의 접미사가 나타내고 있고, [장소]는 17개 유형을 15개 접미사가, [사물]은 11개 유형을 16개의 접미사가 나타내고 있는데 접미사 대 동의파생어의 비율을 보면 각각 1.89, 1.13, 0.69이다. 이것은 [사람]을 나타내는 접미사가 단순히 다른 접미사들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나 [사물]을 나타내는 접미사보다 적극적으로 동의파생어를 형성시킨다는 것을 나타내고 마찬가지로 [장소]를 나타내는 접미사는 [사물]을 나타내는 접미사보다 더 생산적으로 동의파생어를 형성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5. 맺음말

동의 현상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는 주로 의미론의 관심사였으며 따라서 동의어의 내적 구조에 대한 관심은 그리 크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의 동의파생어에 대한 논의는 동의어에 대한 형태론적 측면에서의 접근 가능성을 타진해 본 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동의성의 정도가 특히 동의파생어에서 높다는 사실은 동의어에 대한 형태론적 고려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형태론에서 동의파생어를 바라본 그동안의 주된 시각은 단어 형성 과정에서 높은 동의성을 보이는 동의어가 파생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예외’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었다. 그러나 본고를 통해서 확인한 동의파생어의 규모와 양상은 ‘예외’라는 표찰을 떼어내기에 충분하였다고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판단 아래에 논의의 초점을 주로 동의파생어의 범위를 확정짓고 그 유형을 나누어 가면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포착하는 데 두었다. 동의파생어의 수적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항목 빈도 및 유형 빈도로 구분하여 제시하되 품사별로도 이를 나누어 보았다. 다음으로는 접사의 대응 양상을 고유어 對 고유어, 고유어 對 한자어, 한자어 對 한자어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일반적인 동의어와는 달리 고유어 對 고유어, 한자어 對 한자어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응소의 의미, 특히 접미사 대응소의 의미에 따라 동의파생어를 구분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사람]을 지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장소]나 [사물]을 나타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각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미사의 비율도 [사람]의 경우가 가장 높다는 사실을 들어 [사람]을 나타내는 접미사가 동의파생어 형성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본 논의는 아직도 성긴 부분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본고의 목적이 우선 동의파생어의 전체적인 모습을 소개

하는 데 놓여진 것도 그 원인의 일단이 있지만 동의파생어가 동의성 정도에 있어 형태론적으로 분류된 (2)의 다른 동의어들과는 어떤 관계를 보이는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 아울러 동의파생어 자체에 대한 특성 파악도 아쉬운 점이 적지 않은데 가령 접사의 산성과 동의파생어가 가지는 관계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또한 고에서 살펴본 동의 관계에 대한 형태론적 논의가 반의 관계나 상하계 전반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크게 고민하지 못하였다. 의 관계에만 한정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의미 관계의 규명에 본 논의 얼마만큼의 기여를 할 수 있는지도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아쉬운 대로 앞으로의 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고문헌

- 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립국어연구원(2002가), 《「표준국어대사전」연구 분석》.
 립국어연구원(2002나),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광해(1989),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 현상》, 탑출판사.
 민수·고영근·임홍빈·이승재(1991),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창섭(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태학사.
 창섭(1999), 《국어 어휘 자료 처리를 위한 한자어의 형태·통사문적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창섭(2001), 한자어 형성과 고유어 문법의 제약, 《국어학》 37, 177-195.
 성우(1986), 《15세기 국어의 동의어 연구》, 탑출판사.
 성우(2006), 《16세기 국어의 동의어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명희(2005), 《현대국어 한자어 연구》, 태학사.
 금현(1989), 현대국어 유의어의 연구-유형분류 및 의미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금현(2004), 한국어 유의어의 의미 변별과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15-3, 65-94.
 형익(2004), 《한국의 사전과 사전학》, 도서출판 월인.
 철의(1992),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태학사.

- 심재기(2000), 《국어어휘론신강》, 태학사.
- 양명희(2007), 국어사전의 유의어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22, 165-184.
- 이중열(2000), 동의어의 인지구조와 의미적 비대칭성, 《언어과학연구》 18, 257-280.
- 이광호(2002), 유의어 정도성 측정을 위한 집합론적 유형화, 《문학과 언어》 24, 57-78.
- 이광호(2007), 국어 파생 접사의 생산성에 대한 계량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지룡(1992), 《국어 의미론》, 탑출판사.
- 임지룡(2004), 동의성의 인지적 해석, 《국어교육연구》 36, 223-246.
- 조남호(1988), 현대국어의 파생접미사 연구-생산력이 높은 접미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채현식(2000), 유추에 의한 복합명사 형성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최형용(2003), 《국어 단어의 형태와 통사》, 태학사.
- 최형용(2004), 파생어 형성과 빈칸, 《어학연구》 40-3, 619-636.
- 최형용(2006), 한자 접사와 고유어 접사의 대응 양상에 대하여, 《한중언문학회연구》 19, 339-361.
- 최형용(2007가), 가치평가에서의 의미 변화에 대하여-말뭉치 텍스트의 '점입가경(漸入佳境)'과 '타산지석(他山之石)'의 용례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22, 201-221.
- 최형용(2007나), 동의 충돌에 따른 의미 변화의 한 양상에 대하여, 《국어학》 50, 329-355.
- Aronoff, M.(1976), *Word 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The MIT Press.
- Bloomfield, L.(1933), *Language*, New York: Holt.
- Haspelmath, M.(2002), *Understanding Morphology*, London: Arnold.
- Kiparsky, P.(1982), Word formation and the lexicon, F. Ingemann(eds.) *Proceedings of the 1982 Mid-American Linguistics Conference*, Lawrence: University of Kansas.
- Plag, I.(2003), *Word-Formation in Englis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alise, S.(1984), *Generative Morphology*, Dordrecht: Foris.
- Ullmann, S.(1962), *Semantics-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eaning*, Oxford: Blackwell.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전공]
전화 : 02-3277-3942

E-mail : chy@ewha.ac.kr / mhoney@hanmail.net

투고 일자: 2008. 6. 3.

게재 확정 일자: 2008. 7. 15.